

콜로라도 뉴라이프 선교 교회 미래 계획

□ 우리가 서있는 자리



1. 2004 년 교회 개척 후, 하나님께서는 뉴라이프 교회에 축복을 더하시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뉴라이프 네트워크를 통하여 캄보디아에 집중 선교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 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
2. 더불어 뉴라이프는 한어부 영어부가 한 교회로 존재하는 가운데 당회, 안수 집사회 및 사역 보조 위원회에 안수 받은 영어권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었다. 현재 당회에 6 분의 KM 장로님, 3 분의 EM 장로님, 12 분의 KM 안수 집사님, 4 분의 EM 집사님 동역하고 있다.
3. 이런 사역 모델은 미국에서 발견하기 힘든 모델이다. 한어부 영어부가 한 교회로 사역하는 이런 독특한 모델이 가능하기 위하여 교회 전체의 큰 희생적 헌신이 있었다. 각기 다른 언어, 문화를 서로를 향한 존경, 그리고 자기의 특권을 희생하는 것으로 가능했다.
4. 이런 지도자들의 서로를 향한 존경과 희생 정신과 더불어 한어, 영어 한 목회를 지향하는 1.5 세 담임 목사의 비전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비록 시간과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중언어로 모든 문건을 준비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중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당면한 도전들

1. 문화 및 언어

- a. 가장 큰 도전은 언어와 문화이다. 한어권 성도들은 영어권 성도들에게, 마찬가지로 영어권 성도는 서로에게 생소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 b.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가치 및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큰 차이를 가져오고 문제 그 자체보다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더 힘이 든다. [예: 교역자 사례 및 안식년, 목양의 방법, 재정 운영 및 교회 치리 등등...]
- c. 그래도 지금까지 뉴라이프 교회는 KM 이나 EM 멤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즉 상대방의 문화에 근접하여 있음으로 지속 될 수 있었지만, 이제 EM 회중이 더욱 다양하여 지는 가운데, 한국 문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란 이세, 혹은 Non-Korean 회중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미 뉴라이프는 그런 상황에 당면하고 있다.

2. 지도자 및 회중의 미래

- a. 앞서 언급한 대로, 뉴라이프 교회의 사역 모델은 한어와 영어 회중이 한 교회를 존재하는 독특한 모델이다. 이런 모델을 가능하게 한 요소 중 한 가지가 담임 목사가 1.5 세로서 One-Church 비전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 해 왔다는 것이다.
- b. 하지만, 개척 목사가 은퇴할 시기가 차츰 다가오며, 후임 목사로 과연 이중언어가 가능하고 One-Church 비전을 유지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도전이다. 이미 언급한대로, One-Church 비전은 보편적이지 않고 독특한 것이기 때문이다.

- c. 지도자 뿐 아니라, LA 나 NY 의 대도시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도시의 영어 사역의 미래는 다인종 회중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인 이민자들은 이미 영구 이민 보다는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왔다갔다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고, 이세들이 대학교나 직장을 위하여 대도시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중소 도시에서 오직 한인 이세들로 국한 된 목회는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 d. 다인종 목회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한국 문화가 중점이 될 경우, 각종 문제를 해결할 때, 혹은 목양적 차원에서 문제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는 것부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3. 목회의 형평성

- a. 뉴라이프 교회는 2004 년 개척한 후, 2006 년 전략적으로 EM 전담 목사를 모셨고 2009 년 영어부 안수 집사 (1 인), 2013 년 영어부 장로 1 인을 세우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
- b. 한어부와 영어부 멤버들이 서로를 잘 알지 못함으로, 영어 및 한어 목회에서 안수 직분자를 세울 때, 각 사역의 멤버들로 하여금 지도자를 투표하여 세우고, 그 결정을 서로 받는 것으로 하였다.
- c. KM 과 EM 이 온전히 한 교회로 존재하기 위하여 가장 이상적인 것은 KM 과 EM 이 동반 성장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도시라는 지역적 특징을 감안할 때, 영어부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였지만, 숫적, 재정적으로 한어부와 동반 성장을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목회 형평성의 도전이 제기 되었다. 영어부 지도자들이 적은 숫자의 멤버들 가운데 선출 되는 것에 비하여 한어부는 숫자가 훨씬 큰 한어부에서 2/3 표로 선출 되는 것이 힘들게 된 것이다.
- d.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 될 것이고, 한어 및 영어 목회 지도자 선출에 관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재정적, 숫적인 차이가 영어 목회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한어 목회에 재정적 의존을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독립적 사고 및 책임성이 결여 될 수 있다는 도전도 보게 된다.

4. 영어부 목회자 수급

- a. 한어권 이세들이 신학교에 진학하는 숫자들이 줄어 들며, 중소도시 이민 교회에 영어권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이 이미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대도시 선호 성향]
- b. 아울러 이세 교역자들 및 회중들의 나이와 연륜이 들어감에 한 부서를 책임 지는 것보다, 담임 목사로서 독립적 목회를 지향한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어부와 비전을 같이 하며, 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목회를 청빙하는 것이 큰 도전이 된다.

□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미래는 무엇인가? What next?

Co-Habitation 한 지붕 두 가정 목회 [Tripod Model]

1. 한 지붕 아래 두 가정이 존재하는 것처럼, 영어 목회 및 한어 목회가 목양 및 행정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 사역을 하되 한 장소에서 사역을 하며 필요한 영역에 동반 사역을 한다.
2. 동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 1) 교회 건물 및 유지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장소적 독립을 추구할 경우, 나가는 쪽에서 모든 건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2) 교회 학교를 공유하여 자녀들을 영적으로 공동 양육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 목사를 당회원 자격을 갖추 부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 3) 각 목회가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뉴라이프의 경우, 이런 모델을 지향할 경우, 15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별도 예배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New Life Mission Church of Colorado

Future One Church Vision in Perspective

□ Where we stand now!

1. After planting the church in 2004, God blessed New Life Church to become a church that preaches the gospel while focusing on mission work in Cambodia through the New Life Mission Association network, revealing God's glory and enjoying God's presence.
2. New Life became a church where the Korean-speaking ministry and the English-speaking ministry existed as one church, praying and serving together the community and the world. There are currently six KM elders, three EM elders, twelve KM deacons, and four EM deacons.
3. This one-church model of ministry is hard to find in the United States. To make this ministry possible, the members made a great sacrifice. Overcoming the differences was possible by respecting each other and sacrificing one's own privileges.
4. Along with these leaders' respect for each other and spirit of sacrifice, the 1.5 generation planting pastor's vision greatly influenced and made one church model possible. It takes more time and energy, but with bilingual capacity, the pastor was able to play an intermediate role connecting both ministries and leaders.

□ The Challenges we face

1. Culture and Language

- a. The biggest challenge is language and culture. Korean culture and English culture are different as their languages are different.
- b. This difference in cultur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determining values and solving the problems, and often, efforts to overcome these differences are more complex than the problems themselves. [e.g., perspective in pastor's salary and sabbaticals, ways of shepherding, financial management and church disciplines, etc...]
- c. So far, the New Life Church has maintained one church model since KM, or EM members can understand each other's culture. However, as EM congregations become more diverse

[more members from Non-Korean-American communities] and the significant number of second-generation members born in the US increases, maintaining one church vision will become more challenging.

2. Leadership and the future of members

- a. As mentioned earlier, the ministry model of the New Life Church is a unique model in which one church exists in both Korean and English congregations. One of the factors that made this model possible is that the pastor in charge has pioneered and worked on the church with One-Church vision as a 1.5 generation Korean-American.
- b. However, as the planting pastor's time to retire nears, the church will face challenges to find the next KM and EM pastors who will share and carry on the One-Church model. As already mentioned, the One-Church vision is not universal and is unique.
- c. Except for large cities such as Los Angeles or NY, the future of the Korean-American English ministry in small or medium size cities is not bright. More second-generation Korean-Americans are moving to big cities for colleges and jobs. Korean immigrants are decreasing fast and people who come, rather than permanently settle, but like transients who travel back and forth from Korea to the US since they are financially capable. This will present a great challenge continually growing the church.
- d. If EM became more focused on multi-ethnic ministry, which is inevitable, then it would pose more difficulties becoming one church.

3. Ministerial Fairness

- a. The New Life Church was planted in 2004, and to grow the EM, the church invested early on. In the year 2006, we called a full-time EM pastor, and in the year 2009 elected ordained deacons, and an elder in 2013.
- b. Due to unfamiliarity between the Korean and English departments, we have delegated the responsibility to elect own leaders, and just accept the result.
- c. The best scenario for KM and EM to exist as one church is KM and EM to growing together in the same pace, both numerically and financially. However, although the English department has grown healthy, it has not grown a par with the Korean ministry. The challenge of ministerial fairness has therefore been raised in electing leaders and finances. Compared to EM leaders being elected from a small number of members, it has become difficult electing KM leaders by two-thirds of the votes from a much larger group.
- d. With the EM growth pattern in mind, ministerial fairness can continue to become problematic. Simultaneously, when there is a significant imbalance in size and finance, EM

could continue to rely on KM [being dependent, that is]. They may lack independent thinking and accountability.

4. EM Pastors

- a. It has become a trend that fewer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s enroll in Seminaries, thus becoming more difficult finding Korean-American Pastors, especially one-church vision in mind.
- b. Also, as Korean-American pastors age, rather than pastoring a department at a church, they desire a pastor to pastor as a senior pastor. It will become more challenging to find a pastor who will pastor a church as an associate and maintain One-church.

□ What then, where do we go from here?

Co-Habitation Ministerial Model [Tripod Model]

1. Like two houses existing under one roof, EM and KM exists as independent churches in shepherding and administration.
2. To maintain co-habitation;
 - 1) Mutual responsibilities for building and maintaining the facility. The cost sharing can be scaled by budget and should one party wish to move out, the moving out party will release all facilities' rights.
 - 2) Share Church education raising children together. In this case, it will be strongly recommended to call a CE pastor as an Associate pastor.
 - 3) To make this model possible, both ministries should have a chapel for the morning service. In New Life's case, a chapel with a capacity of 150 people must be built.